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공동체학교 후반기 전체 학부모교육이 오후 3시에 모입니다.
- 공동체학교 연합선교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10월 6일)  
이번 수익금은 대만 임자내교회-영성수련원(노효종선교사)의 건물 보수작업을 위해 작업인력 지원과 함께 전달합니다.
- 양기모집사님(따뜻한사랑방)께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중이십니다.
- 교단 108회 총회가 19일(화)-21일(목) 명성교회에서 모입니다.
-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교장단 모임이 19일(화) 새이레기독교학교에서,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이사회가 20일(수) 사랑방공동체학교에서 각각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성기 집사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서금선 권사 ( 남편 박희만 집사 기일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38 호

2023년 9월 17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제 때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는 싸늘한 가을이 왔지만 여전히 더운 날씨가 계속 됩니다. 유독 이번 여름에는 비가 자주 많이 내렸습니다.

여름인 8월 중에 배추와 무를 심어서 김장을 준비합니다. 무더위를 핑계로 밭일을 미루다 보니 잦은 비로 인해서 밭이 질어져 경운기가 빠져 밭을 갈지 못했습니다. 밭이 어느정도 말라서 경운기 작동을 해야 하는데 땅이 마를만 하면 비가 또 내려서 2-3회 적정한 시간을 놓쳤습니다. 이런 이유로 9월이 돼서야 밭을 갈고 배추 모종을 겨우 심었습니다. 동네의 다른 밭들은 배추가 많이 자랐는데 공동체 배추는 아직 작습니다.

농사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농사란 것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께서 농사 지으시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또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농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는 날씨에 따라 일정이 변하기 쉽습니다. 비가 오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종을 심을 때는 비가 오기 전에 심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비오기 전에 밭을 갈아서 작물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자라면서 어른들이 때, 시기, 타이밍을 중요하다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공부도 다 때가 있다. 젊음이 좋다. 시기가 너무 늦지 않게 해라.” 그 당시에는 잔소리로 들려서 흘려듣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해가 지날수록 공감이가 되고 이해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하만의 계약으로 유다민족이 이방 땅에서 죽을 날이었던 아달월 14일이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하여 구원의 날이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 준비된 사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유다 민족은 이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림절로 지킵니다. 이 날을 위해서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마라톤에 참가해서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10킬로미터 달리기를 했는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선을 한번 넘으면 계속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중간에 힘들어서 쉬었습니다. 그때부터 짧게 뛰고, 자주 쉬게 되었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마라톤에서 우리는 어떤가요? 짧게 보면 여름방학동안에 쉬었던 방모임을 시작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함께 모이는 것을 하지 못하여 모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을 받고 우리를 새롭게 해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마당의 풀을 늦게 뽑으면 더 많은 씨가 떨어져 내년엔 더 많은 잡초가 나옵니다. 더 늦기 전에 좋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밭을 갈 수 없습니다. 때를 놓치면 작물을 심고 기를 수 없습니다. 때를 놓치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놓치면 안되는 때일까요? 다양한 이유로 미루거나 주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된 때에 준비된 우리를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주간의 말씀

“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325 342 / 70

기도 :

성경 : 에스라 6장 1~13절

제목 :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시다

1. 내용: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개에게 포상을 하다.  
(What)

<문단구분>

1~10절 <아하수에로의 포상과 하만의 오해>

11~13절 <상황이 역전 된 모르드개와 하만>

2. 의미: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계획을 앞서신다. (Why)

1)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순간이다.

2) 놀라운 반전의 상황이 일어났다.

3)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명수이시다.

3. 적용: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How)

1)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2) 흠어져 있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3) 하만처럼 교만하지 말자.

## 지금 내가 누리는 가장 좋은 순간

더운 여름이 이제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여전하지만, 파란 하늘과 저녁에 부는 선선한 바람이 가을이 오나 하  
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름이 참 힘듭니다. 유난히 땀을 많이 흘려 쉽게 지치고, 모  
기에 잘 물리는 탓에 여름에는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봄  
에는 마당에 나가 몇 시간씩 잡초를 뽑고, 화단도 가꾸지만, 모기가  
나타나면 아주 조심합니다.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에는 가지  
3그루와 파리고추 1그루가 있습니다. 가지와 파리고추를 따는 잠깐의  
시간 후 들어오는 날이면 모기에게 물려 가려움에 정신이 없습니다.

여름이 가고 있음에 기쁘면서도 다가오는 무림리의 추운 겨울을 생  
각하면 또 걱정됩니다. 전 세계의 이상기온으로 '올해가 내 생애의 가  
장 시원한 여름, 가장 따뜻한 겨울'이 될 거라는 말을 어느 기후학자  
가 방송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이 내가 누리는 가장 좋은  
계절이라는 말에 순간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계절이 내가 누리는 가장 좋은 계절이고, 지금 이 순간이 나  
에게 남아있는 시간 중에 가장 좋은 순간일 수도 있는데, 이후의 삶에  
서 가장 젊고 건강한 순간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누리야지 생각하면서, 거창하게 무엇  
을 해야지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야겠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더 진심으로 대해야지, 조금 더 나의 즐거  
움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과 마음을 가져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함께하는 사랑하는 남편, 2주마다 집에 와서 음식을 싸가며  
엄마,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아들, 먼  
곳에 있지만 사진과 작은 소식들로 반짝반짝한 즐거움을 전해오는  
딸, 매주 교회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때로는 위로  
해주고, 즐거운 마음을 나누는 교회 식구들, 한동네에 살면서도 서로  
바빠 교회에서 만나는 동네 교회 식구들, 제가 누리는 가장 좋은 순  
간을 풍요롭게 해주는 가장 소중하고 선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편 24 : 3-4  
8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마태복음 6 : 12-13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96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베드로후서 1 : 5-8  
540

설교자  
따뜻한사랑방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336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정혜라 한미선 / 봉헌위원 : 강춘자 / 꽃꽂이 : 김영화  
듣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이예은 김보경 진시우 진나우

예 배

## 공동기도문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신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신도들에게 다가올 어려움. 공식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던 무렵에 베드로 사도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가 어려움 당할 것을 대비하여 진심 어린 조언으로 채웠는데,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첫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을 기초로 하여 점차 내용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하나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위기와 다가올 어려움에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속뜻까지 깊이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 수준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높은 수준까지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신앙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기환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양평에 아프리카문화예술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이지만 아프리카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착 후 도시락을 먹은 후에 관장님께서 꾸러기들에게 아프리카에 대해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영상도 보고, 전시물들을 보면서 아프리카의 특징과 문화 등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르지만 아주 멋진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꾸러기들이 잘 듣고 따라와서 관장님이 특별히 스티커선물과 바오밥나무열매로 만든 음료를 선물해주셨습니다. 책으로 봤던 아프리카가 이제는 가깝게 느껴집니다.

성경이야기(성막과 십계명이야기) 활동을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등 어려운 단어들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씩 다시 배워가며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성막만들기 교구를 가지고 만들기를 했습니다. 종이 모양을 때서 풀로 붙이면 되는 간단한 활동이지만 만들게 많아서 거의 하루 동안 만들었습니다. 지루하고 놀고 싶을 수 있지만 모두 집중해서 아주 멋지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다 같이 모여서 다시 한 번 성경이야기를 나눠서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멋진 작품을 보고 뿌듯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 어린이학교

이번주에 어린이학교 도보여행을 위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올레길을 중심으로 걸을 예정이어서 최소각부터 성신까지의 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도보여행길을 모두 걸으며 쓰러진 나무는 없는지, 길이 유실된 곳이나 끊어진 곳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걷는 길에 저학년들

을 위해 필요한 화장실을 찾는 것과 함께 멋진 풍경을 감상하거나 사진 찍을 장소들도 미리 봐 둡니다.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들을 꼼꼼히 점검하며 어린이들과 함께 생각해 볼 거리들도 정합니다. 올레길 사무소, 119에 전화를 하며 잠긴 화장실, 위험하게 넘어진 나무 등을 해결합니다.

전교생이 교사들과 함께 쉴 수 있는 숙소를 알아보려는데, 요즘 제주도의 숙박형태가 많이 바뀌어 많은 인원이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펜션을 찾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은혜를 입어 적절한 숙박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린이학교는 교사 1명이 빠졌기에 그만큼 바빠졌습니다. 한명의 수업을 다른 선생님들이 감당하여 매우 바쁜 한주를 보냈습니다.

< 교사 : 권재만 >

### 멋쟁이학교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보냈던 한 주였습니다. 감기나 코로나로 쉬었던 멋쟁이들이 속속 등교하면서 다소 활기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월요일에는 첫 자치회를 열어서 각 멋쟁이들의 부서를 결정하면서 학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목요일에는 [한인디아스포라]의 주제로, 각 나라별 한인들의 역사와 실황을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세계 각국의 한인들의 삶을 알아보면서 시야가 넓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으로 안전체험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교통, 선박침몰, 자연재해 등 다양한 상황을 배우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번 주는 6학년의 수시접수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멋쟁이학교는 입시만을 위한 교육을 하진 않지만, 6학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후 진로를 향한 발걸음을 도와주었습니다. 6학년은 선생님들과 상의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정리하고 자료로 만들어내는 바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용기를 내어 정진하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 젊게 사는 비결

얼마 전 결혼식이 있어 참석했습니다. 사랑방에서 함께 생활했던 목사님 가정이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방문에 놀라시면서 엄청 반가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댁 딸인 제자가 저희를 보고 처음 딱 한 말은 “아니 그대로 시네요. 두 분 다 어쩜 하나도 안 변하셔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 놀라며 해주는 말이어서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떻게 예전 그 모습 그대로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이런 이야기를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들에게 듣게 되는 것은 아마도 풍기는 분위기가 그대로이기 때문이겠지요. 분위기는 물들어 있는 것인데, 아마도 주변에 아이들이 많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 그 기운이 자연스럽게 스며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언어를 알게 되고, 관심사도 알게 되고 또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이름도 한번쯤 들어보게 됩니다. 저도 한때 유명 걸그룹의 뮤비들을 심층 연구하다 새벽에 떠오르는 해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걸 입덕이라고 하더군요.^^

또 더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허 운동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랬쎬요? 잘했쎬요~~’ 등등 평상시에는 절대 구사하지 않는 언어들 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새겨진 옷도 입어보고 싶고, 마라탕도 점점 매운 단계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박장대소를 하고 서로의 말에 격한 리액션을 해줍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의 아우라를 조금이나마 젊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 쳐져 있다가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가도 학생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면 빨딱 일어나서 맞이하려 나갑니다. 저만의 젊어지는 비법입니다.

젊어지고 싶으세요? 그럼, 주변에 젊은 사람들을 많이 포섭해두세요.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내서 맛있는 것, 재밌는 것을 함께 해보세요. 그들은 분명 여러분에게 젊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314, 322

성 경 : 에스더서 5장 9~14절

말 씬 : 에스더의 용기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재난 당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  
모로코에서는 강진으로, 그리고 리비아에서는 엄청난 홍수 때문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신속히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 108회 총회를 위한 기도>  
다음 주에 있을 예정 통합 총회가 하나님의 성회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모임이 되며, 한국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수시를 준비하는 6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 생활공동체 소식 >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초입입니다. 낮에는 아직 강한 햇볕이 있어 덥지만 해가 떨어진 저녁엔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가을 모기의 소리없는 공격에 아직은 힘들지만 그래도 공동체 마당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매 아닌 큰 비 소식에 활짝 열었던 창문 단속을 하고, 낙엽이 배수로를 막지는 않을까 세심히 살핍니다.

참깨도 털고 마지막 감자도 캐고 주중에 할 일이 많은데 날씨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